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홍예지¹⁾ 박영아¹⁾ 안수빈¹⁾ 이순형²⁾ 이강이²⁾

요약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을 매개로 이들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36개월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278명의 어머니와 88명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로 기술통계, 신뢰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영유아의 놀이성은 이들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을 매개로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촉진하도록 돕고,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적 맥락의 영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부정적 양육태도, 영유아, 스마트기기 과몰입, 놀이성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I. 서론

영유아에게 놀이는 매일 일어나는 자발적이고 중요한 활동이다.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 욕구, 즐거움 및 흥미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표현하며(정미라·강수경·김민정, 2015), 자율성과 주도성을 연습하고 자발적인 동기의 학습을 경험한다(고윤지·김명순, 2013; Fisher, Hirsh-Pasek, Golinkoff, & Gryfe, 2008). 영유아는 또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나타내는 심리적 의사표현인 놀이를 통해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넘어서 점차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을 배운다(허혜경·김민정, 2012).

맞벌이의 증가와 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기대는 유치원, 어린이 집과 같은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영유아의 연령을 낮추고, 참여 영유아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조송림·문혁준, 2013). 이에 따라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넘어서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양한 놀이 경험이 영유아의 놀이성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의 지나친 기대와 조급함에서 기인한 조기교육의 영향으로 점차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인 중심의 지적 교육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이 놀이를 즐길 충분한 경험과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정미라·강수경·김민정, 2015). 이를 고려하여 학령기 아동 및 성인 뿐만 아니라 영아를 포함하여 인간 발달 과정 중 성공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주요한 변인인 영유아의 놀이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영유아에게 놀이가 이루어지는 최초의 환경은 가정이며, 어머니는 주 양육자인 동시에 주 상호작용의 대상으로서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놀이 상대자다(최형성, 2005). 영유아와 어머니는 놀이 환경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다양한 자극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영유아의 놀이성의 촉진 및 발달에 모델링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이상은·이주리, 2010).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놀이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다(김영희, 2012; 원혜준·김명순, 2011; Daunhauer, Coster, Tickle-Degnen, & Cermak, 2007; Landry, Smith, Swank, & Miller-Loncar, 2000).

이와 더불어 영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적 변인 중 디지털 미디어가 현 시대에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기기가 확대 보급되면서 영유아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실태를 파악한 연구가 점차 축적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중독이나 휴대전화의존도를 다룬 연구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터넷, TV 등의 영상물 매체의 과다노출에 의한 과의존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소수

이거나(강정원·장수진·김승옥, 2011; 이경숙·신의진, 전연진·박진아·정유경, 2005; 이경숙·정석진·김명식, 2015), 미디어 매체 중 범위를 좁혀 스마트기기만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의 과다사용 문제를 파악한 연구(김서희·황성온, 2017, 김효정·이희선, 2015)는 점차 진행 중에 있다. 미디어의 빠른 화면전환, 다양한 시각적·청각적 자극은 영유아의 주의를 끌 매혹적인 도구이며, 이들이 무비판적으로 과몰입하도록 유도하기 쉽다(김서희·황성온, 2017; 이경숙·정석진·김명식, 2015; Radesky, Schumacher, & Zuckerman, 2014)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양육 환경에서 미디어의 다각적 이용이 점차 높아지면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놀이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지적이고 상징적인 이해와 정교한 소근육 운동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 단계에 이르지 않은 영아의 경우도 스마트기기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고, 두드리고, 좌우로 움직임으로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Nevski & Siibak, 2016; Nikken & Schols, 2015). 무엇보다도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이들의 놀이성의 관계를 통해 영유아의 스마트기기에의 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놀이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영유아의 놀이성 및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각 변인 간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에 비해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영유아의 놀이성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을 거쳐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을 알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및 놀이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놀이성 사이에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변인 간의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수준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구체적 경로를 파악한다면 이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스마트기기의 역기능적 영향을 낮추고, 영유아의 놀이성 발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유아의 놀이성

놀이성은 놀이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개인의 내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심리적 구인이며, 놀이행동을 일으키는 능동적 성향 또는 태도를 말한다(Barnett, 1990). 놀이성은 놀이의 핵심 부분으로 아동이 어떠한 놀이에 참여하는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한 놀이의 정도와 놀이 상황에서 드러나는 긍정적 정서와 태도를 일컫는다(허혜경·김민정, 2012). 아동은 또래, 교사, 부모 등과 함께 하는 다양한 놀이의 경험을 통해 성격, 성향 및 태도 등을 증진시켜 나아간다(정미라·강수경·김민정, 2015). Liberman(1965)은 놀이성을 아동의 내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단일 특성으로 보았으며,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및 유머감각의 다섯 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 후 Barnett(1990)은 Liberman(1965)의 놀이성 변인에 기초한 놀이성 척도를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놀이성이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놀이의 과정에서 영유아는 주변을 탐색하고 호기심을 가지며, 자발적인 탐구와 다양한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 및 두뇌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 사회, 정서와 같은 통합적인 영역의 학습과 발달을 경험한다(허혜경·김민정, 2012; Fisher et al., 2008). 선행연구는 놀이성이 아동의 다양한 영역의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놀이성은 놀이의 맥락을 경험하는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 맺기와 의사소통을 도우며(Jenkinson, 2001), 아동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강화시키고(Meador, 1992),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며(Barnett, 1998), 사회적 상호작용, 상상력 및 신체 활동의 수준을 높이고(Singer, Singer, & Sherrod, 1980), 건강한 발달과 웰빙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한다(Lester & Russell, 2010)고 하였다. 이처럼 아동의 놀이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놀이성이 아동의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등의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시키고,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놀이성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서 가치 있는 매체이자 수단인 동시에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육임을 강조하고 있으며(고윤지·김명순, 2013), 더 나아가 Mixter(2009)는 아동의 놀이성은 이후 성인의 문제해결, 업무향상 및 긍정적 정서와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놀이성 간 관계

영유아의 놀이성은 영유아의 연령, 기질, 성별, 출생순서, 주도성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제공되는 놀잇감, 물리적 놀이 환경, 또래, 부모, 교사와 같은 인적, 물리적 등 외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윤지·김명순, 2013; 허혜경·김민정, 2012; Keleş & Yurt, 2017; Rentzou, 2013).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로,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한 양육 행동의 경향성과 문화적 반응 양식을 일컫는다(Schaefer, 1959).

선행연구(김영희, 2012; 김희경·유미숙, 2010; 원혜준·김명순, 2011; 이상은·이주리, 2010; Barnett & Kleiber, 1984; Daunhauer, Coster, Tickle-Degnen, & Cermak, 2007; Landry, Garner, Swank, & Baldwin, 1996; Landry, Smith, Swank, & Miller-Loncar, 2000)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놀이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자율적, 애정적, 수용적, 합리적과 같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놀이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통제적, 적대적, 거부적, 비합리적과 같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이들의 놀이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의 양육태도와 3, 4, 5세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장영숙과 조혜정(2006)의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수록 유아의 인지적 자발성의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andry, Garner, Swank와 Baldwin(1996)의 연구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주의집중 행동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관련이 있으며, 이는 어머니와 6개월 영아 간에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놀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Barnett과 Kleiber(1984)의 연구는 평균 연령 5.05세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가정 내 다양한 변인 중 부모의 허용적 태도가 이들의 놀이성과 관련이 없다고 하였으며, 박주희와 한석실(2007)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태도가 만 5세 유아의 놀이성에 유의미한 관련이 없음을 보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혼재된 결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3.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영유아의 놀이성 간 관계

TV, 컴퓨터와 같은 기존의 영상 매체에서 점차 진보된 기술을 갖춘 디지털 미디어가 빠르게 개발되고, 이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일상생활의 필수적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중 스마트기기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기능이 합쳐진 것으로 무선

인터넷을 탑재한 휴대용 단말기를 일컫는다(김효정·이희선, 2015). 대표적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있으며, 이와 같은 스마트기기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의 스마트기기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기기에 노출되는 연령이 빠르게 하향화되어 유아에 이어 영아도 출생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스마트기기를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권연정·이승연, 2013). 이정립(2014)에 따르면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률은 53.1%이며, 스마트폰의 최초 이용 시기는 평균 2.27세로, 만 3세가 되기 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기기의 영향권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는 2015년에 처음으로 유·아동용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척도를 개발하여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성인뿐만 아니라 만 3세에서 9세에 해당하는 유아의 인터넷·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유아의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포함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7.9%이며, 이는 2015년의 12.4%에 비해 빠른 증가를 보였다.

선행연구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의 증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비언어적 정서 단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Uhls, Michikyan, Morris, Garcia, Small, Zgourou, & Greenfield, 2014),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저하시키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게 한다고 하였다(김서희·황성온, 2017; Rasmussen et al., 2016).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또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제한에 기인한 것(권오진, 2015; Jackson et al., 2011; Radesky et al., 2014)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이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소수이며, 이 또한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Marsh(2010)의 연구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영유아의 놀이 및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반면, Jackson 등(2011)의 연구는 높은 미디어 사용 빈도는 영유아의 우울, 공격적 행동과 같은 심리·정서 발달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능력과 같은 사회적 놀이성 발달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간 관계

스마트기기 사용의 근본적인 논의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이들의 발달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축을 이

룬다. 양육과 관련된 변인 중 부모의 적극적인 중재 및 양육태도는 아동의 미디어 사용의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Bittman, Rutherford, Brown, & Unsworth, 2011; 김효정·이희선, 2015; Nevski & Siibak, 2016; Rasmussen et al., 2016). 영유아의 미디어 환경에의 노출 및 이용은 자발적인 동기보다는 가정 내 부모의 양육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ittman, Rutherford, Brown과 Unsworth(2011)는 0-8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텔레비전 사용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Nevsky와 Siibak(2016)의 연구는 에스토니아 0-3세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의한 예측변인임을 밝혔다.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김경희와 정지나(2014)의 연구는 어머니의 적절한 한계 설정과 합리적인 지도가 아동의 미디어 몰입성을 유의하게 낮춘다고 하였으며, 김효정과 이희선(2015)의 연구 역시 어머니가 아동과 함께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된 규칙을 정하는 등의 높은 수준의 한계설정의 양육태도를 보일 때, 이는 아동의 억제조절능력을 높이고, 결국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수준을 낮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일관성 있는 예측이 가능하여 문제행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우에리, 2014). 이에 반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온정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거부적이고, 방임과 무시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및 대전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18곳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유아교육기관 중 기관 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만을 선택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8곳, 직장어린이집 4곳, 가정어린이집 4곳, 국공립어린이집 2곳의 해당 기관 원장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의 취지에 동의한 경우 원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각 원에 재원중인 36개월 미만 영유아 278명과 그들의 어머니 278명 및 담임교사 88명의 응답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영유아 및 영유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영유아 및 영유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 = 278, 단위: 명(%)

변인	구분	빈도(백분율)
영유아성별	남아	152(54.7%)
	여아	126(45.3%)
영유아월령	12개월 미만	2(0.7%)
	12 ~ 18개월 미만	12(4.3%)
	18 ~ 24개월 미만	49(17.6%)
	24 ~ 30개월 미만	98(35.3%)
	30 ~ 36개월 미만	117(42.1%)
어머니 연령	30세 이하	39(14.0%)
	31 ~ 35세	134(48.2%)
	36 ~ 40세	86(31.0%)
	41 ~ 45세	18(6.4%)
	결측치	1(0.4%)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43(15.5%)
	2 ~ 3년제 전문대학 졸업	57(20.5%)
	4년제 대학교 졸업	110(39.6%)
	대학원 졸업	65(23.4%)
	결측치	3(1.1%)
어머니 직업	사무직	75(27.0%)
	전문직	53(19.1%)
	자영업	29(7.2%)
	기술·서비스직 및 기타	17(6.1%)
	학생	19(6.8%)
	전업주부	71(25.5%)
	결측치	3(1.1%)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5(16.2%)
	3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19(42.8%)
	600만원 이상	107(38.5%)
	결측치	7(2.5%)

다음으로, 영유아가 재원 중인 원의 담임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교사의 연령은 만 32.43($SD = 7.83$)세였으며, 교사경력은 평균 5.53년($SD = 3.93$)이었다. 근무 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민간어린이집 종사자가 61.7%로 가장 많았고, 직장어린이집(28.8%), 가정어린이집(11.9%), 국공립 어린이집(1.8%)이 그 뒤를 이었다. 담임교사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 45.7%,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42.1%, 대학원 이상 8.3%, 고등학교 졸업 4.0%이었다. 담임교사의 어린이집 경력은 6-10년 미만이 25.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4-6년 미만 24.1%, 2-4년 미만 21.3%, 2년 미만과 10년 이상은 각각 14.7%이었다.

2. 주요 변인

가. 영유아의 놀이성

Lieberman(1965)의 정의에 기초하여 Barnett(1990)이 제작한 아동의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를 유애열(1994)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영유아의 놀이성은 총 5개의 하위요인, 23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의 놀이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Cronbach' a* 및 대표 문항 예시는 <표 2>와 같으며, 이는 원 척도인 Liberman(1965)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의 *Cronbach' a*의 보고 결과(.66 ~ .83)와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의 놀이성은 어머니의 보고가 아닌 아동이 재원 중인 원의 담임교사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는 가정에서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주 양육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보통 종일반으로 운영되며, 다집단 활동을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본 연구가 실시된 7-8월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충분히 적응이 된 시기이며, 초입이라 볼 수 있는 2년 미만의 어린이집 근무경력에 해당하는 담임교사는 14.7%에 불과하였다. 연구자는 대부분의 경력 담임교사가 자유선택 활동시간을 포함한 하루 일과동안 연구대상 영유아의 놀이성을 자세히 관찰하여 평정하도록 요청하였다.

<표 2> 영유아의 놀이성 변인

하위요인	문항수	<i>Cronbach' a</i>	대표 문항 예시
1. 신체적 자발성	4	.80	"놀이를 할 때 조용한 것보다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한다."등
2. 사회적 자발성	5	.82	"놀이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의 참여를 수용한다."등
3. 인지적 자발성	5	.81	.93 "놀이를 할 때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놀잇감을 사용한다."등
4. 즐거움의 표현	4	.68	"놀이하는 동안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한다."등
5. 유머감각	5	.84	"다른 아이들과 우스운 소리를 내거나 표정, 몸짓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등

나.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Kim과 Rohner(2002)가 Rohner, Kean과 Cournoyer(1991)의 부모 수용-거부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부모의 수용-거부와 통제척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Control [PARQ/Control])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척도를 제외하고, 부모의 수용-거부와 관련된 온정/애정, 적대감/공격성, 냉담/무시 및 일관적 거부의 하위요인만을 활용하였다. 긍정적 의미의 문항을 내포하고 있는 온정/애정은 역채점을 하였으며, 이 후 '온정/애정 결핍'으로 새로이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Cronbach' a* 및 대표 문항 예시는 <표 3>과 같다.

<표 3>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변인

하위요인	문항수	<i>Cronbach' a</i>	대표 문항 예시
1. 온정/애정 결핍	8	.71	“나는 내 아이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등
2. 적대감/공격성	6	.66	“나는 내 아이에게 불친절한 말들을 많이 한다.” 등
3. 냉담/무시	6	.70	.76 “나는 너무 바빠서 아이가 묻는 말들을 대답할 수가 없다.” 등
4. 일관적 거부	4	.59	“나는 내 아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등

다.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이경숙, 정석진과 김명식(2015)이 개발하여 사용한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 척도를 기반으로 모든 항목에서 '영상물'을 '스마트기기'로 주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도구는 발달심리학 석사, 박사 및 소아정신과의사 3인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것이며,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된 척도는 아동학 관련 전문가가 3인이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일상생활장애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 중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한 문항을 제거한 2문항만을 사용하였고 스마트기기몰입과 행동화요인 5문항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아니오(0점)' 또는 '예(1점)'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의 스

마트기기 과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Cronbach' a* 및 대표 문항 예시는 <표 4>와 같다.

<표 4>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변인

하위요인	문항수	<i>Cronbach' a</i>	대표 문항 예시
1. 스마트기기 몰입과 행동화 1	2	.62	“스마트기기를 못 볼 경우 혹은 못 보게 할 경우 심하게 저항한다.” 등
2. 스마트기기 몰입과 행동화 2	3	.57	“시간이 지나갈수록 스마트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려 한다” 등
3. 일상생활장애	2	.64	“스마트기기 사용 이외에 매사에 다른 것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등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서울 및 대전지역에서 연구에 참여할 기관을 임의로 선정하여 원장에게 유선상으로 협조를 구했다. 2016년 7-8월에 걸쳐 원에 직접 방문하여 원장 및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뒤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용 설문지 및 영유아가 재원 중인 원의 담임교사가 교사용 설문지에 모두 응답하여야만 하는 연구의 설계상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설문지를 개별봉투와 함께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연구 대상의 정보 보호를 위해 영유아에게 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어머니용 설문지와 교사용 설문지가 같은 일련번호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어머니용 설문지 및 교사용 설문지 모두 동의서와 함께 동봉되어 각 일련번호에 맞추어 어머니-담임교사 페어 총 350부를 배부하였다. 교사는 교사용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고, 어머니용 설문지는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영유아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가정에서 작성된 어머니용 설문지는 이후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 이렇게 교사에게 모아진 어머니용 및 교사용 설문지 중 281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80.29%이었다. 응답 완료된 설문지는 배부한 후 일주일 내로 연구원이 직접 원에 방문하여 수거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아이에게 스마트기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어머니(3명)를 제외하고, 각 원에 재원중인 36개월 미만 영유아 278명과 그들의 어머니 278명 및 담임교사 88명이 응답한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를 확인하였다. 각 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알아보고,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plus 7.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으며,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방법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여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χ^2 값과 함께 RMSEA, TLI 및 CFI 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RMSEA의 경우 .06이하, TLI 및 CFI는 .90이상인 경우를 좋은 적합도로 보았다(Hu & Bentler, 1999).

IV. 연구결과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및 놀이성 간의 관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및 영유아의 놀이성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자료의 정규성 확인을 위하여 각 변인별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적절한 값(왜도<2, 첨도<4)을 보여, 본 자료가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시켰음을 알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표 5〉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N = 27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50***	1										
3	.28***	.48***	1									
4	.35***	.53***	.51***	1								
5	.02	.11*	.03*	.02	1							
6	.13*	.20***	.19**	.07	.01**	1						
7	-.07	-.05	-.00	-.01	-.08	-.13**	1					
8	-.15*	-.05*	-.02*	-.03	-.01	-.12**	.42***	1				
9	-.11	-.01	-.02	-.02	-.06	-.08	.59***	.69***	1			
10	-.04*	-.01	-.01	-.02*	-.01*	-.07	.54***	.67***	.73***	1		
11	-.09	-.08	-.02	-.05	-.07*	-.14*	.60***	.62***	.69***	.77***	1	
12	-.12*	-.05	-.01*	-.03	-.06*	-.13*	.74***	.83***	.88***	.87***	.88***	1
평균	1.52	1.63	1.38	1.81	1.59	.23	3.96	3.26	3.65	3.91	3.68	3.67
표준편차	.33	.42	.45	.47	.31	.22	.75	.77	.67	.64	.74	.60
왜도	.45	.46	1.03	.33	.78	.88	-.56	-.10	-.30	-.35	-.21	-.20
첨도	-.40	-.43	-.03	.11	.61	.26	-.37	-.35	-.28	-.22	-.39	-.41

주: 1 = 온정/애정 결핍. 2 = 냉담/무시. 3 = 일관적 거부. 4 = 적대감/공격성. 5 = 부정적 양육태도 전체. 6 = 아동과몰입. 7 = 신체적 자발성. 8 = 사회적 자발성. 9 = 인지적 자발성. 10 = 즐거움의 표현. 11 = 유머감각. 12 = 놀이성 전체

* $p < .05$, ** $p < .01$, *** $p < .001$.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변인의 전체 점수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r=.01$,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영유아의 놀이성($r=-.06$, $p <.05$)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과 다른 변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 적대감/공격성을 제외하고 온정/애정 결핍($r=.13$, $p<.05$), 냉담/무시($r=.20$, $p<.001$), 일관적 거부($r=.19$, $p<.01$)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부정적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놀이성의 하위항목 중 사회적 자발성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중 온정/애정 결핍($r=-.15$, $p <.05$), 냉담/무시($r=-.05$, $p <.05$) 및 일관적 거부($r=-.02$, $p <.05$)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놀이성의 하위 항목 중 즐거움의 표현 역시 온정/애정 결핍($r=-.04$, $p <.05$) 및 적대감/공격성($r=-.02$, $p <.05$)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자발성($r=-.13$, $p <.01$), 사회적 자발성($r=-.12$, $p <.01$) 및 유머감각($r=-.14$, $p <.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의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및 유머감각이 유의미하게 낮음을 의미한다.

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놀이성의 관계에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측정모형 검증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잠재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및 놀이성을 측정 요인이 적절히 설명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절히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측정모형 적합도

모형 적합도	χ^2	df	RMSEA 90% C. I.	CFI	TLI
측정모형	85.842**	51	.050 [.031 - .068]	.974	.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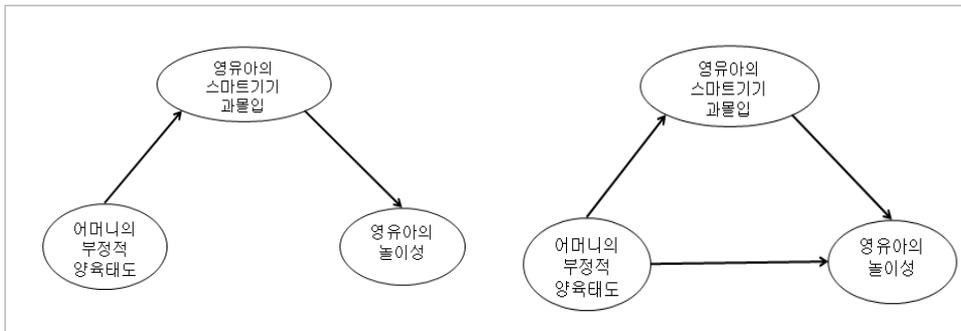
** $p < .01$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수렴 타당도는 측정 요인이 잠재 변인의 이론적 개념을 얼마나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모든 잠재 변인에 대한 측정 요인의 모든 요인부하량(β)의 절댓값이 .55 ~ .88으로 .50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의 기준을 만족시켰다(Bagozzi, Wong, & Yi, 1999). 즉, 각 측정 변인이 해당 잠재 변인의 개념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 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를 검토하였다. 판별 타당도는 서로 다른 잠재변인 간의 개념적 차이가 존재함을 말하는 것으로, 잠재 변인 간의 상관이 -.06, -.15, .25로 모두 .85 미만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도의 조건을 충족시켰다(Bagozzi & Yi, 1988).

3.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놀이성의 관계에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설정 및 비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이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을 포함한 완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두 모형을 비교 및 평가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두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χ^2 , CFI, TLI 및 RMSEA 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놀이성의 관계에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완전매개모형($\chi^2 = 85.907$ ($df = 52$, $p < .01$), CFI = .975, TLI = .968, RMSEA = .049)과 부분매개모형($\chi^2 = 85.842$ ($df = 51$, $p < .01$), CFI = .974, TLI = .967, RMSEA = .050)은 모두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그러나 χ^2 차이 검증을 통해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 본 결과, χ^2 값의 차이가 .065로 자유도의 차이가 1일 때의 임계치인 $.95\chi^2_{1} = 3.84$ 보다 작아서 영가설을 채택하였다. 다시 말해, 두 모형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더 간명한 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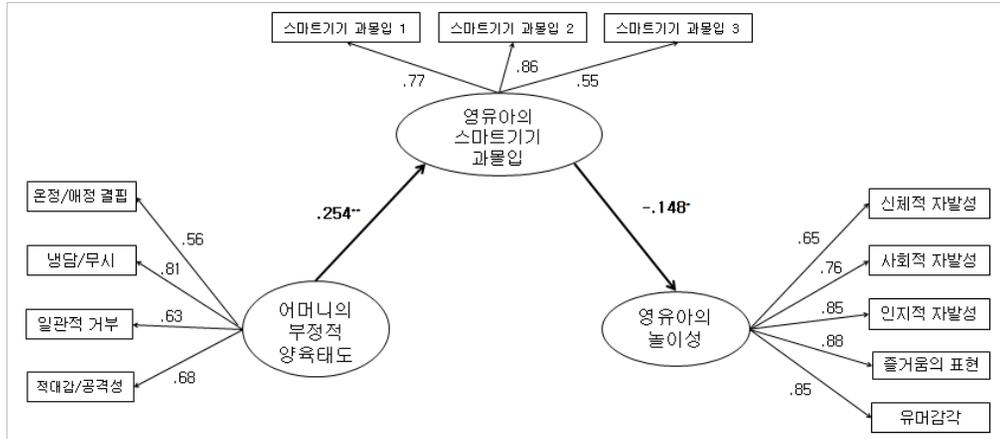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및 놀이성 간의 연구모형(좌) 및 경쟁모형(우)

<표 7>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적합도

모형 적합도	χ^2	df	RMSEA 90% C. I.	CFI	TLI
연구모형	85.907**	52	.049 [.029 - .066]	.975	.968
경쟁모형	85.842**	51	.050 [.031 - .068]	.974	.967

** $p < .01$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2]와 같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beta = .254$, $p < .01$)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이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beta = -.148$, $p < .05$)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 실선은 유의미한 경로이며, 모든 경로는 표준화계수임.

* $p < .05$, ** $p < .01$

[그림 2]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및 놀이성 간의 구조 모형

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놀이성의 관계에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및 놀이성의 관계에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매개효과 유의성은 추정횟수 $n = 10,000$ 으로 설정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을 통해 검증하였다(<표 8>).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을 통하여 유의미한 간접효과($\beta = -.038$, 95% C.I. [-.083 ~ -.008])를 보였다. 즉, 어머니가 영유아에게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수준은 높아지며, 높은 수준의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이들의 놀이성의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8> 매개효과 검증

경로	간접효과	
	(β)	Bias-corrected 95% C.I.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 영유아의 놀이성	-.038*	[-.083 ~ -.008]

* $p < .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및 영유아의 놀이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놀이성 사이를 완전매개한다는 연구모형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경쟁모형을 비교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요약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온정/애정 결핍, 냉담/무시, 일관적 거부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적대감/공격성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영유아의 경우, 어머니가 자신에게 보이는 온정/애정 결핍, 냉담/무시, 일관적 거부의 양육태도는 보다 심리적으로 이들이 쉽게 자각할 수 있는 요인인 반면, 상대적으로 적대감/공격성에 해당하는 불친절한 언행, 공격적 행동은 보다 정교한 인지적 이해를 요하는 것으로 영유아의 발달 과정 내 인지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통합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어머니가 부정적 양육태도를 더 보일수록 영유아가 스마트기기에 과몰입하는 수준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효정·이희선, 2015; 우에리, 2014; Nevski & Siibak, 2016)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특히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어머니가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자녀의 신호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민감성이 낮고, 자녀의 요구에 수용적이고, 애정으로 반응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기술이 부족함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아 및 초기 단계 유아의 경우 부모에게 의존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자녀의 불안정한 생활패턴에서 안정적 생활패턴으로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시기이다(김영미·송하나, 2015). 무엇보다 영유아기에는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의 해석에 있어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므로 자녀 양육에 있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나친 통제나 강압적이고, 냉담 및 무시와 같은 비합리적인 양육태도의 방법이 아닌 진심어린 애정과 관심을 보여야 하며, 이와 같은 온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올바른 사용 환

정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인지적, 신체적, 행동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영유아의 경우 성인보다 디지털미디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에 더 취약하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자각이 필요하며, 책임감 있는 부모 역할 수행(Dimonte & Ricciuto, 2006)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높일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지지와 격려 및 사회적 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역시 놀이성의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및 유머감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즉,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이들의 놀이성을 낮췄다. 이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주 양육자 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제한이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Jackson et al., 2011; Radesky et al., 2014). 놀이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의 정서 단서를 이해하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타인의 정서 단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며(Uhls et al., 2014), 공감능력이 저하되고 자유로운 감정 표현에 제한이 있다고 언급한 선행연구(김서희·황성운, 2017; Rasmussen et al., 2016)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생애 초기 단계인 영아를 포함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정서 발달 중 일반적으로 보다 정교화된 사회적 기술보다 자연적인 상황에서 나타낼 수 있는 놀이성 발달을 측정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는 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구조화하여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둘째,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놀이성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영유아에게 미치는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이 궁극적으로 놀이성 발달에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파악한 연구가 전무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놀이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혼재된 연구 결과 중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박주희·한석실, 2007; Barnett & Kleiber, 1984)와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신체적·인지적·사회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및 유머감각으로 대변되는 아동의 놀이성이 환경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내적 성향을 보다 강력히 반영하는 특성이기 때문이라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척도에서 기인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다. 즉, 김정숙(2005)의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온정, 격려, 허용, 거부, 방임과 같은 양육태도의 경우 유아의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행동이나 습관에 대한 합리적 지도와 한계설정과 같은 양육태도가 유아의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미시적이고 다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각각이 아동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이와 관련하여 경험적 연구가 더 축적되어 관련 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영유아의 놀이성을 저해한다는 것은 영유아에게 미치는 디지털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는 부모의 자녀 양육스타일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현 시대에 미디어 기기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됨에 따라 부모의 양육 환경 또한 변화되고 있음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 대부분의 양육자는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육아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심지어 스마트기기는 부모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대체해 주는 대리모 수단으로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Nevskii & Siibak, 2016; Pempek & McDaniel, 2016). 그러나 영유아기의 방치적 양육의 한 방식으로 미디어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은 양육을 돕는 주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낮춰 방임, 냉담, 무시와 같은 거부적 양육태도로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며, 이와 같은 간접적 영향을 통해 영유아의 놀이성을 저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영유아의 놀이성으로 대표되는 정서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스마트기기의 과몰입을 예방하고, 이들의 놀이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조안아와 고영자(2013)의 연구는 유아기 자녀의 영상물 이용 시 어머니의 정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은 이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부모가 적절한 상황에서 아동에게 정서적 표현을 충분히 하는 것은 아동의 풍부한 정서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에게 정서적 표현을 높이고, 보다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 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질, 단체생활 경험, 놀이 영역, 또래 지위 등의 변인을 파악하여 이들 개개인의 놀이 특성과 성향에 초점을 맞추어 영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저해하는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도 효과적인 것이며, 특히 부모의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 및 과몰입 현상이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고,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더불어, 영유아기는 두뇌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 사회, 정서와 같은 다양한 영역의 발달이 일어나는 결정적 시기로, 이러한 발달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더 나아가 성인기까지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Rasmussen et al., 2016; Zins et al., 2007)를 근거로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영유아에게 미치는 스마트기기의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방하고, 조기 개입하는 측면에서 자녀를 올바른 성장과 발달로 이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가정에서 부모는 양육의 적절한 환경을 구성하여 아이에게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 시간 및 목적 등 명확한 규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한계를 설정해 주고, 아이가 규칙을 잘 따랐을 때 격려해 주는 등 합리적 지도와 적절한 훈육 및 지지적 역할을 통해 긍정적인 양육의 수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의 양육 훈련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미디어 환경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두는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실증적인 부모 교육,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강구해야만 한다. 미국의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2013)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스크린에 기반 한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실정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실제적인 지도지침을 개발하고 부모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및 영유아의 놀이성의 매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점차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아를 본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고찰하고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수준을 파악하여 영유아의 놀이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또한 영유아의 놀이성을 교사 보고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였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추후 연구를 설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제언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의 특성을 해석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평균은 1점 만점에 .234($SD = .217$)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경향성을 근거로 영유아의 놀이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 영유아가 스마트기기를 통해 이용하는 콘텐츠에 대한 객관적 점검이 요구된다. 즉, 영유아가 스마트기기를 통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어떠한 동기로 이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연구 결과를 과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의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경우 어머니에 의해 평정되었다.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부모가 자녀의 인지적 자극과 교육적 동기에 의해 스마트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미디어 노출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empek & McDaniel, 2016). 따라서 본 연구의 어머니의 보고는 자신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응답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현상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과소 추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설문지 이외에도 면접, 관찰 등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 자료가 함께 분석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이 영유아의 놀이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만으로는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논하기 어려우며, 연구대상으로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연령별 각 변인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영유아의 신체, 언어, 인지에 미치는 전인적인 발달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아동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을 확장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디어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이 이들의 다양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추후 검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정원·장수진·김승옥(2011). 유아의 인터넷 게임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유아와 가족 변인의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0(3), 205-224.
- 고윤지·김명순(2013). 유아의 놀이성, 놀이주도성 및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른 놀이행동. *아동학회지*, 34(1), 175-189.
- 권연정·이승연(2013). 만 2세반 영아를 둔 어머니들의 스마트기기 이용지도 양상과 어려움 및 지원요구.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73-109
- 권오진(2015).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부모의 인식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정지나(2014).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남녀 유아의 게임몰입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3(2), 595-609.
- 김서희·황성운(2017).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 조절력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5(1), 1-12.
- 김영미·송하나(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9(2), 71-88.
- 김영희(201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7(2), 27-46.
- 김효정·이희선(2015). 어머니 양육행동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5(4), 113-134.
- 김희경·유미숙(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놀이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5), 115-130.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6).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 박주희·한석실(2007). 유아의 놀이성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7(2), 55-72.
- 원혜준·김명순(201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및 의사소통능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69-184.
- 우애리(2014).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애열(1994). 유아의 상상놀이와 교사개입에 관한 관찰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 이정림(2014). 인터넷 스마트폰 노출 실태 및 보호대책. 이슈페이퍼 2014-1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경숙·신의진·전연진·박진아·정유경(2005). 과도한 영상물 노출 양육이 영유아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임상군과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75-103.
- 이경숙·정석진·김명식(2015). 1-3세 영유아 영상물 과몰입이 일반적, 정서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1), 117-132.
- 이상은·이주리(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 유아 놀이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1(6), 71-85.
- 정미라·강수경·김민정(2015). 만 4, 5세 유아의 놀이성과 의사소통 능력 및 창의적 행동 특성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3(5), 531-542.
- 장영숙·조혜정(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유아교육학회지*, 10(1), 251-268.
- 조송림·문혁준(2013).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6), 125-138.
- 조안아·고영자(2013). 가정내 전자미디어 사용실태 및 어머니의 미디어 중재 유형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2(1), 1-24.
- 최형성(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4), 111-123.
- 허혜경·김민정(201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2(1), 95-110.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3). Children, adolescents, and the media. *Pediatrics*, 132, 958-961.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gozzi, R. P., Wong, N., & Yi, Y. (1999). The role of culture and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effect. *Cognition & Emotion*, 13(6), 641-672.
- Barnett, L. A. (1990). Playfulness: Definition, design, and measurement. *Play and Culture*, 3, 319-336.
- Barnett, L. A. (1998). The adaptive powers of being playful. In M. C. Duncan, G. Chick, & A. Aycock (Eds.), *Play and culture studies: Diversions and divergences in fields of play*(pp. 97-119). Greenwich, CT: Ablex Publishing.
- Barnett, L. A., & Kleiber, D. A. (1984). Playfulness and the early play environment.

-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4(2), 153-164.
- Bittman, M. L., Rutherford, L., Brown, J., & Unsworth, L. (2011). Digital natives? New and old media and children's outcomes.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 55(2), 161-175.
- Daunhauer, L. A., Coster, W. J., Tickle-Degnen, L., Cermak, S. A. (2007). Effects of caregiver-child interactions on play occupations among young children institutionalized in Eastern Europe.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1, 429-440.
- Dimonte, M., & Richiuto, G.(2006). Mobile phone and young people. A survey pilot study to explore the controversial aspects of a new social phenomenon. *Minerva Pediatrics*, 58(4), 357-363.
- Fisher, K. R., Hirsh-Pasek, K., Golinkoff, R. M., & Gryfe, S. G. (2008). Conceptual split? Parents' and experts' perceptions of play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305-316.
- Hong, S., Malik, M. L., & Lee, M.-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Jackson, L. A., von Eye, A., Fitzgerald, H. E., Witt, E. A., Zhao, Y. (2011). Internet use, videogame playing and cell phone use as predictors of children's body mass index (BMI), body weight, academic performance, and social and overall self-esteem.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1), 599-604.
- Jenkinson, S. (2001). *The genius of play*. Gloucestershire: Hawthorne Press.
- Keleş, S., & Yurt, Ö. (2017). An investigation of playfulness of pre-school children in Turke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7(8), 1372-1387.
- Kim, K., & Rohner, R. P. (2002). Parental warmth, control and involvement in schooling: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among Kor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2), 127-140.
- Landry, S. H., Garner, P., Swank, P. R., & Baldwin, C. D. (1996). Effects of maternal scaffolding during joint toy play with preterm and full-term infants. *Merrill-Palmer Quarterly*, 42(2), 177-199.

- Landry, S. H., Smith, K. E., Swank, P. R., & Miller-Loncar, C. L. (2000). Early maternal and child influences on children's later independent cognitive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1*(2), 358-375.
- Lester, S., & Russell, W. (2010). *Children's right to play: An examination of the importance of play in the lives of children worldwide* (Working paper No. 57). The Hague, The Netherlands: Bernard van Leer Foundation.
-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2), 219-224.
- Marsh, J. (2010). Young children's play in online virtual worlds.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8*(1), 23-39.
- Meador, K. S. (1992). Emerging rainbows: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creativity in preschooler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5*(2), 163-181.
- Mixter, A. (2009). *An Exploration of Adult Playfulness in Relationship to Personality: A Correlational Study*. California: Institute of Transpersonal Psychology.
- Nevski, E., & Siibak, A. (2016). The role of parents and parental mediation on 0-3-year olds' digital play with smart devices: Estonian parents' attitudes and practices. *Early Years, 36*(3), 227-241.
- Nikken, P., & Schols, M. (2015). How and why parents guide the media use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11), 3423 - 3435.
- Pempek, T. A., & McDaniel, B. T. (2016). Young children's tablet use and associations with maternal well-be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8), 2636-2647.
- Radesky, J. S., Schumacher, J., & Zuckerman, B. (2014). Mobile and interactive media use by young children: The good, the bad, and the unknown. *Pediatrics, 135*(1), 1-3.
- Rasmussen, E. E., Shafer, A., Colwell, M. J., White, S., Punyanunt-Carter, N., Densley, R. L., Wright, H. (2016). Relation between active mediation, exposure to Daniel Tiger's Neighborhood, and US preschooler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ren and Media, 10*(4), 443-461.
- Rohner, R. P., Kean, K. J., & Cournoyer, D. E. (1991). Effects of corporal punishment, perceived caretaker warmth, and cultural beliefs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in St. Kitts, West Ind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3), 681-693.

- Schaefer, E. S. (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1), 83-104.
- Singer, J. L., Singer, D. G., & Sherrod, L. R. (1980). A factory analytic study of preschoolers' play behavior. *Academic Psychology Bulletin*, 2(2), 143-156.
- Uhls, Y. T., Michikyan, M., Morris, J., Garcia, D., Small, G. W., Zgourou, E., & Greenfield, P. M. (2014). Five days at outdoor education camp without screens improves preteen skills with nonverbal emotional cu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9, 387-392.
- Zins, J. J., Bloodworth, M. R., Weissberg, R. P., Walberg, H. J. (2007). The scientific base link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to school success.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17(2&3), 191-210.

·논문접수 8월 9일 / 수정본 접수 9월 4일 / 게재 승인 9월 19일

·교신저자: 박영아,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메일 90yamw@naver.com

Abstract

The Effect of Mother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Infants' and Toddlers' Playfulness : With a Focus on Infants' and Toddlers' Overindulgence in Smart Devices

Yea-Ji Hong, Young-ah Park, Subin Ahn, Soon-Hyung Yi and Kangyi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infants' and toddlers' overindulgence in smart devi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infants' and toddlers' playfulness. Data were collected from 278 mothers and 88 teachers of children aged below 36 months from child care centers in Daejeon and Seoul, Korea.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 alpha, correlation, and the hypothesized model was verifi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young children's overindulgence in smart devices, but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ir playfulness. Second, the research model was selected as a final model which implied that mothers' negative parenting had an indirect effect on infants' and toddlers' playfulness. Lastly, infants' and toddlers' overindulgence in smart devices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young children's playfuln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implied that is necessary to protect young children from negative media effects with the help of mothers'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by promoting developmentally appropriate media environments for infants and toddlers.

Key word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infants and toddlers, overindulgence
in smart devices, playfulness